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 Newsletter

시민과 함께 2019 / 9월 2주차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여름 불볕더위가 물러가고 어김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땀 흘린 만큼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찾아오는 계절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삶도 갈등보다는 평화가 더 크게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해보다 길지 않은 연휴라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셔야 될 듯합니다. 급한 발걸음의 와중에도 여유 잃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뜻있고 따스한 시간 나누고 돌아오시는 길 편안한 여정되시길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초록으로 일렁이던 곳곳의 논이 황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익어가는 나락을 보며 땀 흘려 일하는 이들에게 일한 만큼 넉넉함이 전해지길 빌어봅니다. 우리 연구원도 남은 2019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마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변함없이 “모두를 위한 내일”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신뢰와 후원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사를 전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8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이사장 김병문 올림

## 청교도의 Mayflower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미국 메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메이플라워호

미국이 미지의 대륙에서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한지가 300여년이 되었다. 요즘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들 초기의 개척정신과 불굴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어진다. 초기 미국 건설에 중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컬어 '청교도'라고 한다.

신대륙 개척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했지만 그중에서도 영국, 특히 청교도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미지의 대륙이었던 이곳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원래의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1492년에 상륙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꼽고 있다. 그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후 영국의 존 스미스선장이 1607년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영국인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나, 그가 1609년 영국으로 돌아가자 흐지부지 되었다.



영국의 개신교 신자(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의 거센  
풍랑을 헤치고 신대륙으로의 향했다.

이후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에 도착하였는데, 청교도들은 영국 헨리 8세가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가 담긴 수장령 선포에 반대하였고 또한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하는 순수한 신앙심으로 뭉쳤고 박해가 심해지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지로 피신을 하다가 영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신대륙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다.



17세기 복장을 한 청교도 후예들, 그들은 지금도 당시의  
생활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청교도들의 플리머스 정착촌 풍경, 그들은 언덕에 집을 짓고  
힘들 때 바다 건너 고국을 그리며 향수를 달래곤 했다.

청교도들 102명은 1620년 9월 6일 영국의 남쪽 작은 항구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출발하였다. 이들은 대서양의 거센 풍랑을 헤치고 63일 만에 미국 매사추세츠 해변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이곳을 영국을 떠나올 때 마지막 항구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 이름 짓고 정착촌을 만들었다. 세계 지도를 놓고 영국의 서남쪽 해변과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해변을 살펴보면 양쪽이 같이 Plymouth라는 지명을 보게 된다. 그곳들이 출발지와 도착지이다.

그들은 대서양의 험난한 풍랑을 넘어 12월에 신대륙에 상륙하였으나, 혹독한 추위를 견디느라 고생하였다. 더더욱 이듬해 땅을 개간하고 영국에서 가지고 온 콩, 보리 등을 심었지만, 토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숙한 재배경험으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여 그 이듬해 가을도 배고픔의 시련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에 아브나키, 스쿠안토 등 인디언 부족들의 도움으로 다음해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플리머스 정착촌에는 첫 감사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아무튼 청교도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미지의 신대륙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미국을 기독교 사회로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날마다 새로 나는 속리산 상고암, 첫 번째 이야기 - 속리산 법주사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정이품송 거침없는 순환 속에서 자라나고 시드는 존재들의 표상이다

인간의 삶이 불행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 날마다 거듭나지 못하는 점도 이 가운데 분명 한 가지 이유가 되리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운명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기력하게 일회성 삶을 소모한다. 진보가 없이 날마다 그저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마친다. 구각舊殼을 벗지 못하는 삶은 필연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창공을 훨훨 나는 자유로운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애벌레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은殷나라의 탕湯임금은 천자의 신분임에도 늘 새로 나고자 노력하였다. 자신의 욕조에다가“참으로 날마다 새롭고 나날이 새로워지니, 또 매일 새로워지자. [苟日新日日新又日新]”라고 새겨 놓았다. 탕임금은 몸만 깨끗이 씻을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자아를 날마다 부지런히 닦아 새 인물로 거듭나고자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장구한 인류의 역사 위에 위대한 성군聖君으로 썩지 않을 이름을 남겼다.

상고암上庫庵도 새롭게 거듭난 암자다. 그저 목재나 쌓아 두던 허드레 창고에서 어엿한 암자로 다시 태어나, 오늘에까지 전해 온다. 그 자리가 백두대간의 늠름한 봉우리인 속리산 비로봉 아래라서 더욱 자랑스럽다.

한반도의 중추인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일어나 개마고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힘을 크게 비축한다. 그러고는 함경도 한가운데를 뚫고 내려오다가 분수령에서 동해 쪽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푸른 동해를 옆에 끼고 남진하는 백두대간은 금강산과 설악산, 오대산을 차례로 빗어 올린다.

태백산에 다다른 백두대간은 다시 내륙을 향해 서쪽으로 거대한 몸통을 튼다. 그리고 한반도의 복판 즈음에 다다라 갈무리해 온 정기를 내뿜어 장중한 속리산으로 솟구친다. 백두대간은 다시 남쪽으로 몸을 꺾어 덕유산과 지리산을 세우면서 영호남을 가르게 된다.

백두대간이 크게 부풀려 놓은 속리산은 남한강과 금강, 낙동강으로 물을 흘려보낸다. 오대산 아래쪽의 태백산맥에서부터 속리산의 동북쪽 물은 모두 모여 남한강으로 흐른다. 속리산의 서남쪽 물은 금강으로 흐르고, 동남쪽으로 흘러내린 물은 낙동강으로 모여든다. 이 3대 강은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적시는 중요한 물줄기다. 예로부터 속리산에는‘삼타수三陀水’란 샘물이 있다고 여겨 왔다. 삼타수에서 내린 물이 각각 남한강, 금강, 낙동강을 이룬다고 여겼기에, 삼타수가 바로 3대 강의 발원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삼타수는 다름 아닌 상고암에서 솟는 약수라고 비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상고암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상고암 약수의 효험과 우수성은 조선조 세조 때에 이미 명성을 얻었다. '정이품송'의 유래를 통해 널리 알려졌듯이, 세조는 신병치료차 피접을 나와 속리산에 머문 적이 있다. 그때 세조는 복천암福泉庵에 머물렀는데, 식수는 물론 약을 달일 때에도 반드시 위쪽에 있는 상고암의 물을 길어다 사용했다고 한다.

속리산이란 이름은 신라 말기의 학자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남긴 "도불원인인원도道不遠人人遠道, 산비리속속리산山非離俗俗離山"이란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도를 멀리하고, 산은 속세를 떠나려 하지 않는데 속세가 산을 여의는구나."라고 풀이된다. 이때 속리산은 속세를 벗어난 산이란 의미를 지닌다.

또 다른 전설은 다음과 같다. 신라 선덕왕 5년(784)에 김제 금산사金山寺에 있던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속리산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들판에서 밭갈이를 하던 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어 율사를 맞아들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농부들은 미물인 소들조차 깨우치고 뉘우치는 모습에 크게 감동해서 다투어 머리를 깎고 율사를 따라 입산수도하였다고 한다. 이에 속세와 이별하는 산이라고 하여, 속리산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호서 지방에서 제일가는 절이란 뜻의 '호서제일가람'이 속리산 법주사다. 법주사란 이름은 불법이 머무는 절이란 뜻을 지녔으며 신라 진흥왕 14년(583)에 의신조사義信祖師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당시에 의신조사는 천축국에서 가져온 불경을 흰 나귀에 싣고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의 절터에 이르러 나귀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았다고 한다. 이에 이곳에 절을 짓고 이름을 '법주사'로 삼았다고 한다.

일설에는 진표율사의 제자들에 의해 창건된 길상사吉祥寺가 법주사의 전신前身이었다고 한다. 진표율사는 백제의 유민으로, 실의에 찬 백제 땅의 사람들을 위해 전라도 모악산에 먼저 금산사를 세웠다. 그리고 뒤이어 이곳에 법주사를 일으켰다. 두 곳 모두 미륵장륙존상彌勒丈六尊像이 봉안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녔으니, 미륵의 출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유민들을 위한 조처였다.

당시 속리산에는 영심永深, 융종融宗, 불타佛陀라는 세 대덕이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안으로 진표율사를 찾아가 법맥을 인정받고 『공양차제비법供養{次第秘法}』 한 권과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두 권, 그리고 점대 189개를 하사받았다.



**법주사 일주문** 산사로 드는 이리주문은 나그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

이때 진표율사는 이들에게 속리산으로 다시 돌아가 길상초가 돌아나는 자리를 찾은 다음, 이곳에 절을 짓고 이름을 길상사로 부르도록 일렀다고 한다. 그런데 진표율사가 하사해 준 서적들과 점대로 인해, 길상사는 뒷날 법주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한다.

다음 주는 날마다 새로 나는 속리산 상고암 두 번째 이야기 “개울 건너 비로산장”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 ■ 후원사업 안내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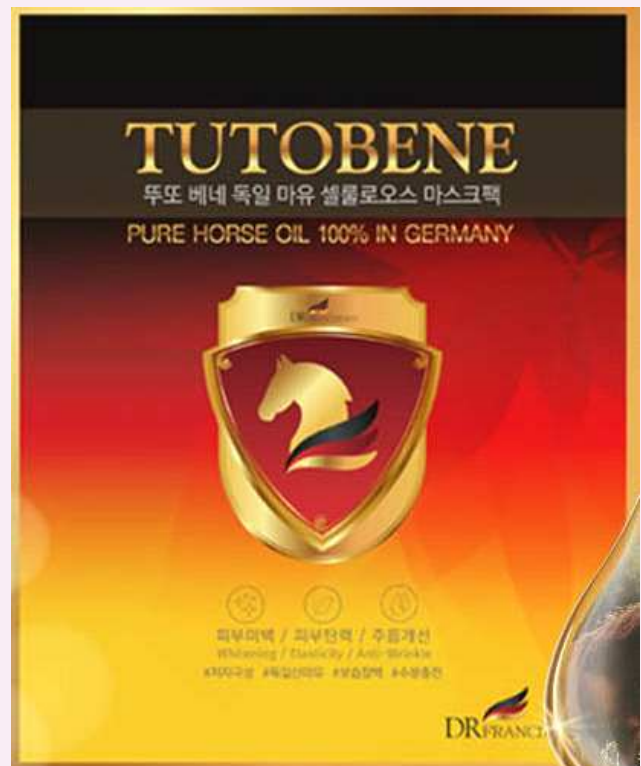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